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정해옥 |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전문 / 우리협회 역사문화특별위 부위원장 (jh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7

삽교천 (插橋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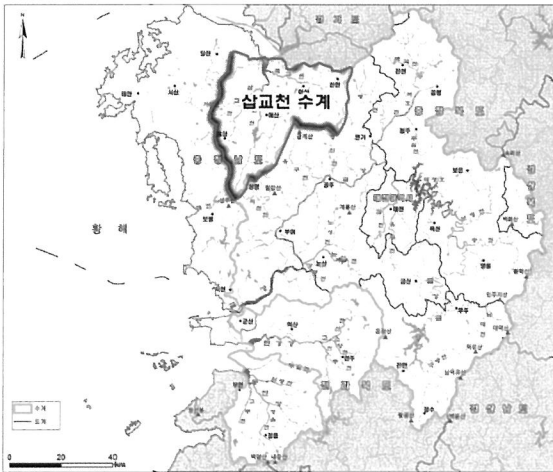
삽교천 (插橋川)

삽교천 지명은 옛날 이 하천에 쉼(떨나무)으로 다리를 놓았으므로 '삽다리' 또는 '삽교', 혹은 '사읍교', 그 뜻을 새겨서 '쉼(薪)자'를 붙여 신교(薪橋)라고도 하였다. 고려때 신교천의 신(薪)자가 삽(插)으로 바뀐 것으로 이영택이 지은 「한국지명」에서 밝히고 있다. 예전에는 금마천이라고도 하였으며, 여러 문헌에는 범근내, 범근천, 범근내포 등으로도 나오며 선화천이라고도 하였다. 1860년경 흥선대원군이 부친 남연군 묘소를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가야산에 쓸 때 삽교천

을 건너기 위하여 삽다리를 확장하였다는 설이 있다.

옛날 이 냇가에 살던 새아씨가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삽교천을 건널 수 없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쉼으로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설도 있다. 「동국여지승람」 덕산현편에 보면 '삽교:덕산현 동쪽 15리에 있는데 고려때는 신교천(薪橋川)이라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교천: 본읍 동쪽 17리 지점에 있다, '사읍교천: 본읍 동쪽 17리 지점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삽교천, 신교천, 사읍교천이 모두 같은 강임을 알 수 있다. 「대한지지」에서 보면 '소사하(素沙河): 근원을 공주 유구산에 두고 신창을 지나고 아산 영인산 부근에서 곡교천과 만나고 아산만으로 들어간다.

아산만은 임진왜란때 명장 양호가 일병을 대파하였던 곳



삽교천 수계



「대동여지도」 (15첩 5면) 금마천 일대

이다라고 기록되어 삽교천은 모래(沙)와 관련이 많은 강, 즉 사읍교천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신교천(薪橋川)의 신과 삽이 통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삽다리가 삽다리로 변하게 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삽교는 사읍교에서 그음이 합성된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삽교천 유역의 땅 이름은 예(禮)가 산처럼 쌓였다는 예산, 덕(德)이 산처럼 쌓였다는 덕산(德山), 충무공 묘소와 현충사, 윤봉길 의사 생가와 충의사, 주사 김정희 선생 고택, 최익현 선생 묘소, 김좌진 장군 동상 등 충절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있다.

그 외 명칭

▶ 금마천 金馬川

홍성군 금마면의 서쪽을 흐르는 삽교천을 불렀던 옛 지명이다. 고려 말의 최영(崔瑩)장군이 금마면의 철마산에서 금마를 타고 말달리기를 하였다고 한다.

▶ 범근내 犯斤乃

하류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범근천, 범근내포, 범천 등 비슷한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범근'은 우리말 '버근'을 적기 위한 한문표기로써 '버근'은 작은, 또는 '다음'의 뜻으로 부(副), 차(次)의 뜻을 지녔다. 이는 아산만에 비해서 작은 내(버근 내)라는 뜻이며, 범근내의 '내(乃)'는 천(川)을 뜻한다.

▶ 사읍교천 沙畝橋川

예산·덕산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상류에서 모래가 많이 떠내려와 하구에 쌓였으므로 생긴 이름인 듯하다. '사읍교'는 한문의 자의(字意) 보다도 '삽교'와 같은 말뿌리의 이름으로 볼 수 있고, 음이 합성되어 생긴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삽다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 선화천 宣化川

예산군 덕산면 일대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선화'는 선정을 베푼다는 뜻이며, 각 도 관찰사의 집무실을 선화당이라 하였는데, 홍성읍에 있었던 홍주목과 관련된 이름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에는 덕산현 동쪽 선화천에 삽교가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 (15첩 5면) 선화천 일대

▶ 신교천 薪橋川

예산·덕산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교천의 신(薪)은 '썰'으로써 불을 지피는 나무-땔나무를 뜻한다. 하천 위에 나무로 엮은 다리를 놓았으므로 신교천이라 하고 땔나무를 뜻하는 '썰'이 '삽' 또는 '사읍'으로 표기된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며 '신교천(薪橋川)'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